

2024년 9월 23일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24일(화)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목: 한국은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주제 세미나 공동개최

- 한국은행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9.24.(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
 - 동 기술포럼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
-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의 환영사,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의 축사에 이어 발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1팀 팀장 유희준, 과장 이지은
Tel : (02) 750-6542, 6690 Fax : 750-6519 E-mail : bokcbdc@bok.or.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 고낙준, 사무관 김푸르나
Tel : (02) 2100-3061, 3068
공보관 : Tel : (02) 759-4023, 4022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1)

한국은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주제 세미나 공동개최

한국은행과 개인정보위는 9월 24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CBDC와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포럼은 개인정보위가 2022년 9월에 발족한 협의체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기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염홍열 기술포럼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염홍열 기술포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CBDC 관련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한국은행 이지은 과장이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여부나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개인정보보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BDC 시스템 설계 목표와 연구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CBDC 관련 다양한 법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강조했다.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는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여러 사용자의 서명을 섞어 누구의 서명인지 알 수 없게 하는 링 서명(Ring Signature) 기술을 활용한 CBDC 송금 거래 실험을 소개했다. 또한, CBDC 거래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설명했다.

이어 크립토랩의 신준범 CTO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정보 제어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동형암호 기술은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해도 기존 데이터의 계산과 동일한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기술이다. 신준범 CTO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역 정보를 주도적으로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로 지크립토 오현옥 대표는 '영지식증명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의 AML/CFT(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기술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영지식증명은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 정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영지식증명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않고도 거래의 이상 행위를 검증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을 준수할 수 있다.

패널 토론에서는 장항배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협력해 CBDC 도입시 시스템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 측면에서의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은행 또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세미나 개최는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CBDC 시스템 내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연구단계에서의 논의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포스터



사전등록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방향

일시 : 2024. 9. 24.(화)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 한국은행 별관 2층 컨퍼런스홀

PROGRAM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개회사	염홍열 기술포럼 의장
14:05~14:10	환영사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14:10~14:15	축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발 제		
14:25~14:40	발제1 :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	이지은 과장(한국은행)
14:40~15:00	발제2 :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	김도엽 변호사(김앤장)
15:00~15:20	발제3 :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방안	최대선 교수(숭실대)
15:20~15:40	발제4 : 동형암호기술 활용 이용자 정보제어권 부여방안	신준범 CTO(크립토펀)
15:40~16:00	발제5 : 영지식증명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의 AML/CFT 기술 설계 방안	오현욱 대표(지크림토)
16:00~16:10	휴식	
패널 토론		
16:10~17:20	주제 :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쟁점사항 및 PET 활용방안	
17:20~17:30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17:30	폐회	



주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IT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은행 개인정보 기술포럼

※ 패널토론 참석자

- 공 공 : 고낙준 과장(개인정보위), 유희준 팀장(한국은행)
- 학 계 : 장항배 교수(중앙대, 좌장), 이대희 교수(고려대), 최대선 교수(숭실대)
- 산업계 : 김효봉 변호사(태평양), 김태진 전무(라운시큐어)